

스마트비즈엑스포서 중기 판로 확대 나서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4개사가 참가·부스운영... 스마트공장 구축·판로개척 성과 공유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에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자·중소기업중앙회·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 상생협력 박람회로, 전국 80여 개 구축기업이 홍보관을 마련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0주년을 기념해 특별관 및 전시관 운영, 구매상담회, 라이브커머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홍보 기회를 확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개막식에 이어 전북도 기업관을 둘러보며 지역 내 기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 행사 일환으로 열린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0주년 기념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 참여기업 부스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업들의 기술혁신 성과와 수출 실적을 살펴봤다. 도내 14개 기업은 제품 홍보

와 상담·판매를 위한 부스를 열었으며, 구매상담회 27개사, 라이브커머스 방송 4개사가 참여했다.

아울러 수출 상담 등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 100여 명과 현장 미팅을 진행하는 등 판로 확대에 성과를 올렸다.

도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전국 최초 민관 협력형 혁신모델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AI·데이터 기반의 공정혁신과 맞춤형 현장 멘토링을 실시하며, 지역 주도의 제조혁신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김 지사는 "스마트비즈엑스포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행사"라며 "이번 참여를 계기로 전북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전국적 판로를 넓히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체전 참가 전북선수단 격려 방문

도의회 문안위, 개최지 부산의 레슬링·씨름·양궁 경기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1일 제106회 전국체전이 한창 진행 중인 부산광역시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레슬링, 씨름 경기가 열리는 BEXCO 제2전시장(해운대구)과 양궁 경기가 열리는 을숙도체육공원(사하구)을 찾아, 전북자치도를 대표하여 출전 중인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50개 종목(정식 48, 시범 2)의 경기가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총 1,594명(임원 462, 선수 1,132)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도의회 기획행정위,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 예정부지 현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1일 장수군 일원 소방안전타운 내에서 추진 중인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계획과 부지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전북도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 신축 예정 부지를 직접 확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법정 필수시설 확보와 함께 전북 소방학교 승격 추진의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교육생 생활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여건 개선은 곧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생활관 건립을 통해 교육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전북 소방인력 양성과 대응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교육현안 논의 위해 자문위원과 머리 맞대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폭넓은 정책자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교육의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10대 핵심과제 추진 △하위영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북 교육발전특구 운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전

북형 늘봄학교 운영 현황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진형석 위원장은 "자문위원 분들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은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자문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교육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통해 도의회의 입법과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유망 스타트업, 벤처투자사와 지역성장을 잇다

'전북 벤처투자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 개최... 도내 벤처기업의 밸류업·적기투자 위한 전략적 IR무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경)는 21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25년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실전 매칭을 통해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된 전북형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성장 중이거나 이전을 진행 중인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주제로, 전북 벤처펀드 컨소시엄 운용사 및 유관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기업의 성장·투자·정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과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정책출자기관 등 약 8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유망기업 IR 피칭, 투자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올해 1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치한 소재기업 '엘오아이'와 중기부 스케일업 탑스 프로그램에 선정,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 진행 중인 세포 배양육 '광세'가 투자유치와 성장을 이룬낸 성공사례를 공유했으며

IR세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차(茶) 솔루션 '메디프레소' △배터리 진단 솔루션 '모나' △반도체 성분검사 장비 제조 '아이에스피' △나노다이아몬드 '에스터블유케미컬즈' △친

환경 메탄저감자료 제조솔루션 '엔텍 바이오에스' △이차전지 전해질 및 첨가제 '이퍼캠텍' △방사성의약품 '카이바이오텍' △이차전지 양극재용 추출제 '코솔러스' △절대합기성 생균 치료제 '헬스바이올' 총 9개사가 IR피칭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지금까지 벤처펀드 25개, 누적 결성액 9,171억 원을 달성하여 정책출자와 민간자금이 결합된 투자모델을 구축 중이다.

올해는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완성해, 초기·후속투자·회수·상장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며 현재까지 95건의 전북 벤처펀드 794억원, 공동투자 1,436억원의 총 2,230억원의 벤처투자가 집행되었다.

특히,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은 도의 유망기업을 사전에 탐색

하고 투자 후보 기업군을 확보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에 대해 후속투자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자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대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바로 전북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면서, "혁신의 씨앗인 스타트업의 자금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11월 한국산업은행 연계 라운드, 12월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 등 '2025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스케일업'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주도형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달라진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알리며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21일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관광·산업 분야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만금 관광·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광개발업체, 건설

사, 컨설팅사, 회계법인 등 20여 개 기업이 참석했으며,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도 함께 자리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을 소개하며 새만금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투자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부각하며 관광·산업 복합 개발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크루즈 연계 관광사업을 소개하며, 대규모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연발 분양을 앞둔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지구 분양계획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투자를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총장 박 병 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